

모의고사 지문 분석

이감

부록

2023학년도 시준6 제6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과 영향

지문 평가

(가)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설명한다면, (나)에서는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둘은 역전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에서 장기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나)를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추론을 요구하고 있어서 난도가 상당하다. 꼼꼼하게 읽고 공부해 두자.

Keyword

(가) 사회 - 경제학 - 장단기 금리 역전

장기 금리, 단기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 기간 프리미엄, 정책 금리, 양적 완화

(나) 사회 - 경제학 - 한미 간 금리 역전

신흥국, 선진국, 한미 간 금리 역전, 동조화 경향

(가) 문단 1 화재 제시

- 1) 금전을 빌릴 때 원금 대비 지불해야 할 기간당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 한다. 대출 기간이 길수록 화폐 가치 하락과 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커지므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다.

▶ 대출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지므로,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다.

- 2)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 낮아지는 역전 현상에 이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전조로 간주되기도 한다.

맥락 짚기 ▶ 반면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은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런 '역전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것이 왜 '경기 침체의 전조'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장기 금리 < 단기 금리 ⇨ 경기 침체의 전조

(가) 문단 2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발생 원인

- 1) 금리 결정 이론에 따르면 장기 금리는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의 합으로 구성된다.

▶ '장기 금리'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개념들 간의 관계를 수식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면, 되도록 수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유용하다. 훨씬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금리 =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 + 기간 프리미엄

주목 ▲ 지문의 초점은 '역전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위의 수식을 고려하면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가 낮아지거나 '기간 프리미엄'이 낮아질 때 장기 금리는 낮아질 것이다.

- 2) 전자[→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며, 후자[→ 기간 프리미엄]는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유가 증권인 채권 중에서 보유 기간이 긴 장기 채권의 보유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는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단기 금리'의 변동에 대한 기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시장의 예상이 '통화 정책에 의해 단기 금리가 인하될 것'일 때에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는 낮아진다.

▶ '기간 프리미엄'은 보유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즉 장기 채권의 보유 위험이 작을수록 '기간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 그렇다면 '역전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단기 금리↓ 예상 ⇨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 ⇨ 장기 금리↓
장기 채권의 보유 위험↓ ⇨ 기간 프리미엄↓ ⇨ 장기 금리↓

- 3) 이에 따르면 향후 경기 침체가 우려되어서 미래에 큰 폭의 **정책 금리** 인하가 예상되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낮아질 때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기 쉽다.

▶ 이때의 '정책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가) 문단 3 경기 예측력을 부정하는 입장

- 1)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물가 상승 위험이 기간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채권은 지급될 이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채권 수익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장기 채권의 보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 '기간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간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물가 상승 위험'이라는 주장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장기 채권의 보유 위험'도 커진다는 의미다.

주목 ▲ 다만 우리의 관심사는 '역전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으므로 1)의 반대 상황으로 정리하는 편이 유용하다.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그로 인해 '기간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물가↓ [→ 물가 하락 위험] ⇨
장기 채권의 보유 위험↓ ⇨ 기간 프리미엄↓ ⇨ 장기 금리↓

- 2) 그러나 최근 **일군의 학자들**은 기간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장기 국채의 수급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량 팽창 정책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여 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라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장기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맥락 짚기 ▶ '기간 프리미엄'의 주된 결정 요인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군의 학자들'은 양적 완화 등에 의한 '장기 국채의 수요 변화'가 '기간 프리미엄'의 주된 결정 요인이라고 본다. 여기서 '국채'는 채권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장기 국채 수요↑ ⇨ 장기 국채 가격↑
⇨ 장기 채권의 보유 위험↓ ⇨ 기간 프리미엄↓ ⇨ 장기 금리↓

- 3) 이들은 근래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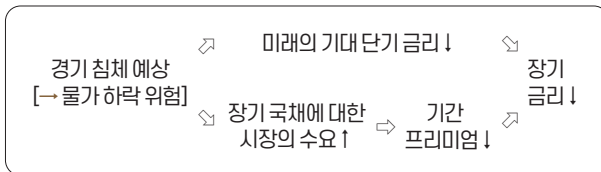
▶ 최근에는 '양적 완화'의 결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일 뿐, 이를 경기 침체의 전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물가 하락 위험'으로 인해 나타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니므로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가) 문단 4 경기 예측력을 옹호하는 입장

물론 **다수의 학자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의 경기에 대한 예측력이 여전하다고 본다.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미래의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장기 국채에 대한 시장의 수요 역시 증가하므로 기간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날 당시에 시장이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이번에는 '다수의 학자들'의 관점에서, 앞서 살핀 '일군의 학자들'의 관점을 다시 반박하고 있다. 근래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기 침체의 전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만약에 시장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게 되면[→ '물가 하락 위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모두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예측력을 여전히 갖는다.]



▶ 이때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가 인하되는, 즉 정책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일 것이다[문단2-3].

주목 ▲ 다만 '다수의 학자들'과 '일군의 학자들'이 '기간 프리미엄'에 대해 상반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 ↑' ⇒ '장기 채권의 보유 위험 ↓' ⇒ '기간 프리미엄 ↓'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다수의 학자들'은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 ↑'가 '경기 침체 예상' 때문이라고 본다면, '일군의 학자들'은 '양적 완화' 때문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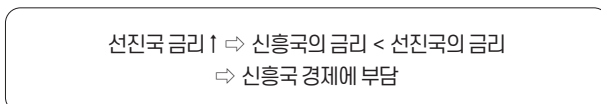
(나) 문단 1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 역전

1)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을 뿐 아니라 위험 역시 높아서 금리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 '신흥국의 금리'와 '선진국의 금리'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2) 선진국에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데, 이는 신흥국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국제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 그런데 선진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면, 예외적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맥락 짚기 ▲ 통합 지문에서 (나)를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적절히 끌고 올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서는 '신흥국 금리와 선진국 금리 간 역전'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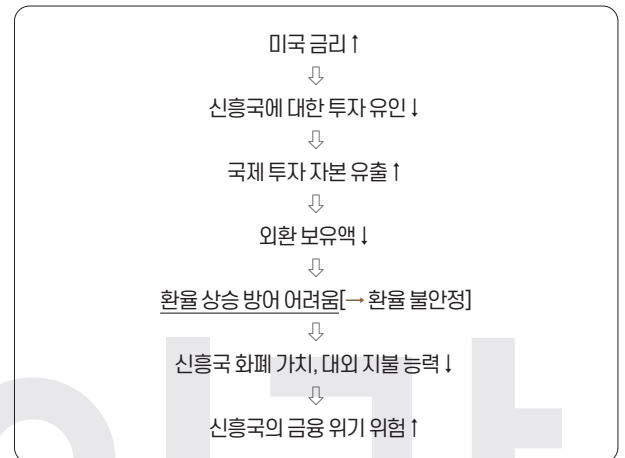
▶ 다만 (가)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나타나는지가 주된 초점이었다면, (나)에서는 이미 금리 역전이 '선진국의 금리 인상'에 의해 나타난다고 먼저 제

시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지를 (나)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 문단 2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과 신흥국의 대처

1)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 신흥국의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이 감소하여 신흥국에서 국제 투자 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외환 보유액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신흥국은 급격한 환율 상승을 방어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그 결과 신흥국 화폐의 가치 하락 및 대외 지불 능력의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되어 금융 위기의 위험이 높아진다.

▶ 선진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단계별로 주어졌다. 차근차근 정리하면 된다.



2) 이런 이유로 일부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한다.

▶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해 결국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신흥국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흥국이 먼저 자국의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나) 문단 3 동조화 경향에 따른 한미 간 금리 역전

1) 2018년 즈음에는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나타난 바 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장기 금리가 미국의 장기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동조화 경향**을 바탕으로 한다.

맥락 짚기 ▲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 역전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즉 한국을 '신흥국', 미국을 '선진국'에 놓으면 된다.

▶ 그와 관련하여 '동조화 현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장기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함께 증가하거나, 함께 감소하는] 현상이다.

2) 금융 위기 이전[→ 2008년 이전]에는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으나, 금융 위기 이후에는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더 커진 상태**이다.

▶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은 모두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가)의 문단2-1). 다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는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자.

3) 2018년 당시 한미 간 장기 금리 동조화도 양국의 기간 프리미엄이 동조화된 데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속되면서 **한국의 정책 금리가 장기간** 낮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장기 금리에 대한 국내 정책 금리의 영향력에 비해 미국의 기간 프리미엄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국내

기간 프리미엄 변동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이다.

▶ 왜 금융 위기 이후에는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더 커졌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강한 추론을 요구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지문에 주어진 정보를 전부 활용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08년의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이어졌다[→ 경기 침체의 지속].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은 '정책 금리'의 인하다[(가)의 문단2-3].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었다면,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수준으로 정책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그로 인해 오히려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장기 금리를 구성하는 나머지 변수인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이다.

▶ **주목** ▲ 그런데 '국내 기간 프리미엄'은 '미국의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융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서 '기간 프리미엄'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2008년 이후의 금리 동조화에는 '해외 요인'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장기 금리 =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 국내 요인의 영향력, 사실상 '0']
+ 기간 프리미엄[→ 해외 요인의 영향력]

↓
2008년 이후 장기 금리의 결정에 '해외 요인'의 영향력 ↑

↓
한미 간의 '금리 동조화'에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 ↑

(나) 문단 4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대한 대응 방법들

1) 2018년 한미 간 금리 역전은 미국이 양적 완화 중단을 선언하고 큰 폭의 정책 금리 인상을 예고한 이후에 나타났다. 동조화 경향에 따라 한국의 장기 금리도 상승했으나 그 상승폭이 미미했던 것이다.

▶ '양적 완화'는 장기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장기 금리를 낮추는 통화량 팽창 정책이었다[(가)의 문단3-2]. 이것을 중단하고[→ 기간 프리미엄 ↓], 정책 금리 인상을 예고한다는 것은[→ 미래 기대 단기 금리 ↓] 결국 '미국의 장기 금리'를 인상시킨다.

▶ 한미 간의 '금리 동조화'에 의해 '한국의 장기 금리'도 함께 인상되었으나, 상승폭 자체는 미국에 비해서는 미미하였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함에 따라,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2)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정책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리 역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인해 한국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각'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 장기 금리가 인상될 테니, 이를 통해 '역전 현상'을 극복하자고 본 것이다.

3)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경기의 견고한 회복세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국내 경제 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었다.

▶ 앞선 '일각'의 주장과 대조되는 관점인 '신중론'이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해결책이 정책 금리 인하였다면, 반대로 정책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 있다[→ 경기를 진정시키는 해결책에 해당]. 그러므로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을 것이다].

4) 당시 한국의 장기 국채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하여 환율이 안정화된 상태라는 점도 이러한 신중론에 힘을 보탰었다.

▶ 신중론의 또 다른 근거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금융 자산은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데[문단2-1], 당시는 한국의 장기 국채가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아

환율도 안정화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국제 투자 자본의 유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아래의 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 gap과 신흥국 을의 주요 경제 지표이다.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gap의 장기 금리	0.2	0.15	1.0	1.2	1.5
을의 장기 금리	0.3	0.2	0.8	1.1	1.3
을의 환율	1,000	1,000	1,300	1,100	1,000

▶ **맥락 짚기** X 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역전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의 원인에 해당하는 'gap의 금리 인상'에 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2) gap과 을의 금리 동조화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08년 이후 더 강화되었다.

▶ '금리 동조화'는 두 국가의 장기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현상이다[(나)의 문단3-1)]. 표에서도 2012년까지는 두 국가의 금리가 함께 하락하고, 2014년부터는 함께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08년 이후의 '금리 동조화'는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더 컸을 때라면, 그 이전의 금리 동조화는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의 영향력이 더 컸을 때이다.

3) gap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수차례 양적 완화를 단행하다가 2013년 말에 양적 완화 중단을 선언하고 정책 금리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하였다.

▶ **주목** ▲ 선진국인 gap의 금리가 신흥국인 을의 금리보다 높아진 시점은 2014년이다. 즉 이때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나)의 문단1-2)].

▶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2018년 한미 간 금리 역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인 gap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정책 금리의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2014년에 'gap의 장기 금리'가 대폭 인상된 것이다[(나)의 문단4-1)].

4) 을의 금융 시장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을의 장기 국채는 2017년 이후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 다만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을의 환율은 2016년부터 비교적 안정화되었으며, '을의 장기 국채도 우량 자산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2014년에는 환율이 불안정해졌는데, 이는 당시에는 을의 장기 국채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신중론'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굳이 정책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나)의 문단4-4)].

∴ 2016년에 을의 환율이 급등하지 않은 것은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을이 정책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을의 금융 시장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점과 더 관련 있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을이 정책 금리 인상을 실제로 단행했다면 이는 '역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에도 을의 장기 금리가 gap의 장기 금리보다 낮다. 이를 통해서도 해당 선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브네팅의 원리

지문 평가

'서브네팅'의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다만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예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추론을 요구한다. 배울 점이 많은 지문이니 충분히 공부해 두자.

Keyword

기술 - 통신 기술 - 서브네팅

네트워크, 호스트, 라우터, 서브넷, 서브네팅, IP 주소, 1비트, 옥텟, 네트워크 비트, 호스트 비트,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문단 ① 네트워크와 서브넷

1) **네트워크**는 **호스트**라 불리는 컴퓨터들 간의 통신망이며, 네트워크 간의 통신은 네트워크에 포함된 **라우터**가 중계한다.

➡ 짧은 문장에 비교적 많은 정보들이 함축되어 있다. 일단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을 가리켜 '호스트'라 하고,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많은 호스트들이 존재한다.

➡ '네트워크 간의 통신'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트워크도 하나가 아닌 여럿이 존재한다. 이때 네트워크 간의 통신은 각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라우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2)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호스트 간의 직접적이고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서,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라는 작은 네트워크들로 분할하는 **서브네팅**을 통해 직접 통신이 필요한 호스트들끼리만 적정 규모로 묶어 통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서브네팅은 **호스트나 라우터에 부여되는 고유 주소인 IP 주소**를 활용한다.

➡ '네트워크 간의 통신'과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통신'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통신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통신 효율을 높이려면 직접 통신이 필요한 호스트들로 구성된 작은 네트워크(→ 서브넷)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가리켜 '서브네팅'이라 한다.

➡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IP 주소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서브네팅'의 원리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단 ② IP 주소의 형태

1)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의 한 자리를 **1비트**라 하고 8비트 단위를 **옥텟**이라 할 때, IP 주소는 1옥텟에서 4옥텟까지의 네 옥텟을 점으로 구분한 형태를 띤다. 십진수로는 '192.168.0.1'과 같은 형태이다. 옥텟에서 가장 큰 '11111111'은 십진수로 255이므로, 십진수는 0부터 255까지만 나타난다.

➡ IP 주소는 '네 옥텟'으로 구성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십진수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진수로 구성된 비트로 표현될 수도 있다.

➡ 각 옥텟은 8비트로 구성되는데, 가장 큰 수는 십진수로 255에 해당한다. 즉 하나의 옥텟은 256가지의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참고 ▼ 사람은 IP 주소를 십진수로 생각하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 IP 주소는 이진수이다. 각 옥텟에서 8자리의 수는 순서대로 2의 0승부터 7승까지를 나타내므로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라 십진수와 이진수를 서로 변환할 수 있다. 가령 이진수 '10000100'은 세 번째 자리와 여덟 번째 자리에 비트 1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각각 그에 해당하는 값인 4와 128을

더하여 십진수로는 '132'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문에서 이를 직접 계산할 이유는 없으며 주어진 예시를 활용하면 된다.

이진수 ↓ 십진수	1	1	1	1	1	1	1	1
	2 ⁷	2 ⁶	2 ⁵	2 ⁴	2 ³	2 ²	2 ¹	2 ⁰
	128	64	32	16	8	4	2	1

2) 이진수의 IP 주소는 **네트워크 비트**와 **호스트 비트**로 구분된다. 예컨대 네트워크에서 총 32개 비트 중 앞에서 20개 비트까지를 네트워크 비트로 설정했다면 남은 12개 비트는 호스트 비트이다.

➡ IP 주소는 네 옥텟으로 구성되고, 각 옥텟이 8비트이므로 총 32개의 비트가 존재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비트가 N개라면, 호스트 비트는 '32-N'개가 된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네트워크 비트 호스트 비트

3) 네트워크 간 통신 시에는 먼저 **네트워크 비트**만 참조되면서 목적지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라우터로 정보가 전송되고, 그 라우터에서 **호스트 비트**를 참조하여 해당 **호스트**로 전달된다.

➡ '네트워크 간 통신'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네트워크 비트'에 따라 '목적지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라우터'를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호스트 비트'에 따라 '목적지 호스트'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단 ③ IP 주소의 할당

1) 각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비트**를 몇 번째 비트까지로 삼는지는 라우터에서 정해 놓은 서브넷 마스크로 확인된다.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와 형태가 같되, **네트워크 비트**에 1을, **호스트 비트**에 0을 나열한 것이다. 그래서 3옥텟까지가 네트워크 비트이면 서브넷 마스크는 십진수로 '255.255.255.0'이 된다.

➡ '서브넷 마스크'의 목적은 네트워크 비트를 표시하는 데에 있다. 이는 네트워크 비트를 1로만, 나머지 호스트 비트는 0으로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3옥텟까지가 네트워크 비트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이진수 : 11111111.11111111.11111111.00000000
• 십진수 : 255.255.255.0

2) 이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와 호스트들에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는 호스트 비트로 남은 8비트의 조합, 즉 2⁸인 256개인데, ……

➡ 어떤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이라면 이를 통해 네트워크 비트가 24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호스트 비트는 8개라는 뜻이다 [문단2-2].

➡ 즉 어떤 네트워크에 할당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주어진 예시를 이해할 때 일반화된 수식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비트의 개수가 N개일 때, 호스트 비트의 개수 '32-N'개
⇒ 해당 네트워크에 할당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 '2^{32-N}'개

주목 ▲ 네트워크 비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에 할당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는 적어진다. 그런데 IP 주소는 호스트나 라우터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수도 적어진다.

네트워크 비트 ↑ ⇒ 호스트 비트 ↓
⇒ 네트워크에 할당될 수 있는 호스트의 수 ↓

3) …… 실제로는 2개를 뺀 254개이다. 가장 앞쪽 주소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되며, 가장 마지막 주소는 네트워크 안 모든 기기들에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주목 ▲ 다만 실제로는 여기서 다시 2개를 빼야 한다. 가장 앞쪽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가장 마지막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쓰이기 때문이다. 즉 라우터나 호스트에 할당될 수 없는 주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비트의 개수가 N개일 때, 호스트 비트의 개수 ‘32-N’개
⇒ 해당 네트워크에 할당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 ‘2^{32-N}-2’개

참고 ▼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비트’를 제외한 ‘호스트 비트’가 전부 0이어서 네트워크 비트만 알면 네트워크 주소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간 통신’에서 네트워크 비트에 따라 ‘목적지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문단2-3].

문단 4 서버네팅의 예시

1) 호스트 200개를 서버넷 마스크가 ‘255.255.255.0’인 하나의 네트워크로 운영하다가, 호스트 50개씩 4개의 서버넷으로 나누어 보자.
⇒ ‘서브네팅’의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가 위와 같다면, 문단3의 예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즉 24비트가 네트워크 비트, 남은 8비트가 호스트 비트에 해당한다.

2) 이를 위해서는 라우터 4개를 마련하고 서버네팅을 거쳐 각 라우터들에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한 후, 라우터와 호스트들에 IP 주소를 할당해야 한다. 분할해야 할 서버넷이 4개일 때에는 4옥텟에서 앞쪽 2개 비트까지를 네트워크 비트에 포함하는 설정을 해야 한다.

⇒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라우터가 포함된다[문단 1-1]. 라우터 4개를 마련하는 것은 ‘4개의 서버넷’으로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때 서버네팅은 원래의 서버넷 마스크에서 ‘네트워크 비트’를 2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왜 2개를 추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그렇게 하면 2개 비트의 가능한 조합인 ‘00’, ‘01’, ‘10’, ‘11’에 따라 서버넷들의 가장 앞쪽 주소인 ‘네트워크 주소’에서 4옥텟은 각각 ‘00000000’, ‘01000000’, ‘10000000’, ‘11000000’이 될 것이다. 이는 십진수로 0, 64, 128, 192에 해당한다.

주목 ▲ 네트워크 비트가 2개 추가됨에 따라, 2개의 비트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의 개수는 4(→ 2²)개이므로 ‘4개의 서버넷’을 새로 만들 수 있다.

⇒ 각 서버넷의 ‘네트워크 주소’는 그에 할당되는 IP 주소 중 가장 앞쪽 주소로 정해진다[문단 3-3]. 즉 네트워크가 비트가 아닌, 남은 호스트 비트가 전부 0이 되어야 한다(→ ‘000000’). 이를 십진수로 표현하면 각각 ‘0, 64, 128, 192’가 된다는 것이다.

4) 라우터들에 설정될 서버넷 마스크는, 4옥텟의 두 번째 비트까지 네트워크 비트가 되며 ‘11000000’이 십진수로 192이라는 점에서, ‘255.255.255.192’가 된다.

⇒ 서버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비트가 2개 추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192’는 새로운 숫자가 아니고, ‘1000000’에 대응하는 십진수로 이해하면 된다.

• 이진수 : 11111111.11111111.11111111.11000000
• 십진수 : 255.255.255.192

5) 이렇게 서버네팅을 한 후에는 남은 호스트 비트에 따라(→ 6비트에 따라) 라우터와 호스트들에 IP 주소를 할당한다. 예컨대 3옥텟까지 IP 주소가 ‘192.168.0’이었다면 첫째 서버넷에서 라우터와 호스트

들에는 ‘192.168.0.0’과 ‘192.168.0.63’[→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을 제외한 그 사이의 IP 주소가 할당된다.

⇒ 예를 들어 첫째 서버넷에 할당될 수 있는 IP 주소는 4옥텟을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00000000~00111111’ 사이의 값이다. 앞쪽 2비트인 네트워크 주소가 ‘00’으로 정해졌으니 남은 호스트 비트를 전부 사용하면 이러한 값이 도출되는 것이다.

⇒ 다만 가장 앞쪽 주소인 ‘00000000’은 네트워크 주소로, 가장 마지막 주소인 ‘00111111(→ 63)’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할당되므로, 그 사이의 ‘00000001~00111110’이 라우터나 호스트에 할당되는 것이다. 즉 ‘2⁶-2’개인 62개의 주소가 첫째 서버넷에 할당된다. 나머지 서버넷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주소	할당되는 IP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첫째 서버넷	192.168.0.0	192.168.0.1 ~192.168.0.62	192.168.0.63
둘째 서버넷	192.168.0.64	192.168.0.65 ~192.168.0.126	192.168.0.127
셋째 서버넷	192.168.0.128	192.168.0.129 ~192.168.0.190	192.168.0.191
넷째 서버넷	192.168.0.192	192.168.0.193 ~192.168.0.254	192.168.0.255

<보기> 분석

<보기>문단

1) 기존에는 오른쪽 표의 정보를 토대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운용되어 있었고, 148개의 호스트가 그에 속해 있었다.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 라우터 X, Y를 마련하고 기존의 네트워크 비트에 1개 비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버네팅을 하였다.

네트워크 주소	192.168.1.0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 라우터를 2개 마련하고, 네트워크 비트에 1개 비트를 추가해 2개의 서버넷으로 분할하려는 상황이다. 문단4의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서브넷 마스크’를 토대로 기존 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 비트가 24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1비트를 추가하면 25개 비트가 네트워크 비트가 되고, 서브넷 마스크의 4옥텟은 ‘10000000’이 된다. 4옥텟의 십진수는 ‘128’이 되어, 2개의 서버넷의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128’이 된다.

⇒ 서버네팅 이후에는 ‘호스트 비트’가 1비트가 적은 7비트이므로, 실제로 각 서버넷에 할당되는 IP 주소는 126개이다(→ 2⁷-2).

2) 그 결과, X가 포함된 첫째 서버넷에서는 총 100개의 IP 주소가 라우터와 호스트들에 할당되었고, Y가 포함된 둘째 서버넷에서는 총 50개의 IP 주소가 라우터와 호스트들에 할당되었다.

(단, X에 연결된 호스트들의 IP 주소에서 4옥텟에는 Y에 연결된 호스트들의 IP 주소에서보다 작은 값이 할당된다고 가정함.)

⇒ ‘첫째 서버넷’과 ‘둘째 서버넷’에 각각 라우터 X, Y가 할당된다.

주목 ▲ 이때 첫째 서버넷의 호스트들에 더 작은 값의 IP 주소가 할당되므로 첫째 서버넷에는 4옥텟이 ‘00000000~01111111’인 IP 주소들이 할당되고, 둘째 서버넷에는 4옥텟이 ‘10000000~11111111’인 IP 주소들이 할당된다.

X가 포함된 첫째 서버넷	서버넷 마스크	255.255.255.128
	네트워크 주소	192.168.1.0
	X나 호스트들에 할당되는 IP 주소	192.168.1.1 ~192.168.1.126
	브로드캐스트 주소	192.168.1.127
Y가 포함된 둘째 서버넷	서버넷 마스크	255.255.255.128
	네트워크 주소	192.168.1.128
	Y나 호스트들에 할당되는 IP 주소	192.168.1.129 ~192.168.1.254
	브로드캐스트 주소	192.168.1.255

참고 ▼ 기존 네트워크에 속한 호스트들의 개수는 148개였는데, 그중 99개의 호스트가 첫째 서버넷에 연결되고[→ 여기에 라우터 X에 IP 주소가 하나 할당되어 총 100개의 IP 주소가 할당되고], 나머지 49개의 호스트가 둘째 서버넷에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라우터 Y에 IP 주소가 하나 할당되어 총 50개의 IP 주소가 할당되는 것이다.]

∴ 각 서버넷에 할당된 IP 주소는 126개인데, 둘째 서버넷에는 이미 50개의 IP 주소가 라우터나 호스트에 할당되었다. 그렇다면 추가로 할당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는 76개이므로 ㉞번 선지는 적절하다.



[14~17] 인문

조선 시대 암행어사의 포폄

지문 평가

'관찰사의 포폄'이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암행어사의 포폄'이 관찰사의 포폄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비교할 수 있다면 비교적 쉬운 지문이다.

Keyword

인문 - 한국사 - 암행어사, 포폄

중앙 집권 체제, 수령, 관찰사, 포폄, 심복, 향리, 암행어사, 감영, 생음, 연로음, 계본, 서계, 봉서, 사목, 비장, 영리

문단 ① 포폄의 목적과 폐단

1) 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은 자치의 강화에 목적을 두기보다 **중앙 집권 체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그러나 각 군현의 **수령**들을 중앙에서 파견하였음에도 그들의 지방 행정을 중앙에서 통제하기 어려웠기에 군현이 속한 도의 수장인 **관찰사**로 하여금, 관리들의 공과에 대한 평가인 **포폄**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조선 시대 통치의 기본 취지는 '중앙 집권 체제'로, 각 군현의 수장인 '수령'을 중앙에서 파견하는 형태를 취했다. 또 수령[→ 지방 행정]을 통제하기 위해 '관찰사의 포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2) 그러나 관찰사는 임기가 2년에 불과하여 자신의 **심복**에게 평가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지방의 하급 관리인 **향리**와 결탁해 수령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였으며, 이로 인해 포폄에는 부정이 만연하였다. 이에 조선 중기부터는 포폄의 폐단을 **암행어사**의 포폄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관찰사의 포폄'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포폄을 수행하는 주체는 관찰사의 '심복'이었는데 그들이 '향리'와 결탁하였기 때문이다[→ 문제 원인].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암행어사의 포폄'이었다.

맥락 읽기 ▲ 지문의 초점이 주어졌다. '관찰사의 포폄'에서 드러난 '심복과 향리의 결탁'이라는 폐단을 '암행어사의 포폄'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 '암행어사의 포폄'을 '관찰사의 포폄'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② 암행어사의 포폄

1) 암행어사의 포폄은 관찰사의 포폄이 공정한지를 감찰하는 측면으로 시작되었으나, 인조 때에 암행어사가 염탐해야 할 대상에 관찰사가 포함되었고 영조 때에 불법 행위 이외에 근무 태도까지 살피도록 염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정조 7년(1783)에는 감찰을 넘어서 관찰사의 능력 여부까지 평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

▶ 암행어사의 포폄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암행어사의 포폄'이 '관찰사의 포폄'에 비해 효과적인 방안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 …… 그 밖에 모든 지방 관리 특히 관찰사의 독자 통치 구역인 **감영**에 소속된 심복들에 대해서도 염탐하도록 하였다.

주목 ▲ '관찰사의 포폄'에서 문제 원인은 관찰사의 심복이 군현의 관리인 향리와 결탁하였다는 점이었다[문단①-2]. 여기서 '감영에 소속된 심복'을 염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문단 3 관찰사와 암행어사의 포폄의 차이점 (1)

1) 관찰사와 암행어사의 포폄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었다.

▶ **맥락 짚기** ▲ 지문의 초점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결국에는 '관찰사의 포폄'과 '암행어사의 포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2) 관찰사가 관할 지역 안의 품계를 가진 모든 관리를 포폄한 것과 달리 암행어사는 파견 지역인 **생읍**과 경유 지역인 **연로읍**의 관리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암행어사의 평가 대상에는 관찰사도 포함되므로, 관찰사가 이미 포폄한 수령을 암행어사가 달리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관찰사가 파직되기도 하였다.

▶ '관찰사의 포폄'은 자신이 다스리는 도에 속한 군현에서 품계를 가진 모든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암행어사의 포폄'은 특정 지역[→ 생읍, 연로읍]의 관리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물론 여기에는 '관찰사'도 포함된다.

	관찰사	암행어사
포폄 대상	관할 지역의 품계를 가진 모든 관리	관찰사 생읍과 연로읍의 관리

3) 관찰사의 포폄 보고서인 **계본**에서의 평가가 덕행과 재능을 기준으로 8자 또는 4자의 글자 수에 맞춰 함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것과 달리, 암행어사의 포폄 보고서인 **서계**에서의 평가는 국왕의 특별 지시 사항을 담은 문서인 **봉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국왕의 특별 지시 외의 기준은 직무 범위의 기본 규정인 **사목**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관찰사의 기록 형식은 평가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이루어지기 쉬워서, 소문만으로 수령을 탄핵하는 권한을 지녔던 관찰사가 악용할 소지가 컸다. 이와 달리 서계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었고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서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였다.

▶ '관찰사의 포폄'의 보고서는 '계본'이라 하고, '암행어사의 포폄'의 보고서는 '서계'라 한다. 핵심은 계본의 경우 수령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고 함축적이었던 반면, 서계의 경우 평가가 훨씬 구체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포폄에서의 부정을 차단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관찰사	암행어사
포폄 보고서	계본	서계
평가 기준	덕행과 재능	봉서, 사목
특징	글자 수 제한, 함축적	글자 수 제한 없음, 구체적

문단 4 관찰사와 암행어사의 포폄의 차이점 (2)

1) 관찰사와 암행어사의 포폄 방법은 모두 평가 대상을 몰래 조사하고 살피는 엽탐이었지만 그 **주체**에 있어 차이가 컸다. 관찰사는 보좌관인 **비장**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영리**를 각 고을로 보내 엽탐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리들은 지방의 향리 가문에서 세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이들의 유착 관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 먼저 '관찰사의 포폄'은 비장과 영리[→ 관찰사의 심복]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단-2].

▶ 그런데 대부분의 '영리'는 향리 가문 출신이라서, 향리와 결탁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는 포폄에서 부정이 만연한 것에 대한 원인이었다.

2) 암행어사 역시 심복들에게 엽탐을 맡겼지만 이들은 암행어사 본인이 직접 은밀하게 선발하였고, 때로는 암행어사 본인이 직접 엽탐하기도 하였다.

▶ 반면 '암행어사의 포폄'에서는 스스로가 직접 선발한 자에 의해 엽탐이 이루어졌고,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엽탐에 나서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심복과 향리와의 결탁'이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찰사	암행어사
엽탐 주체	비장, 영리[→ 향리 가문 출신] 등 관찰사의 심복	암행어사의 심복 암행어사 본인

3) 암행어사는 서계에 평가를 기록하기에 앞서 자신이 어떻게 엽탐을 하였는지부터 서술해야 하였고, 반드시 관인이 찍힌 문서와 같은 증거 문서를 남겨야만 하였다.

▶ '서계'에서는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문단3-3],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문서도 함께 작성되었다는 뜻이다. 이 또한 포폄에서의 부정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문단 5 암행어사의 포폄의 한계

다만 암행어사의 포폄도 그 한계가 노정(= 겉으로 드러나 보임)되었다. 제한된 지역에 한시적으로 파견되었음은 물론 신분 노출이나 경험 미숙 등의 문제도 있었다. 특히 계본과 서계의 내용이 상반될 경우에 대개 왕의 신임 정도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최종 평가가 결정됨으로써, 포폄의 공정성은 온전히 확보되기 힘들었다.

▶ 다만 '암행어사의 포폄'도 최선은 아니었다. 특히 동일한 관리에 대한 포폄이 이루어졌을 때 '관찰사가 작성한 계본'과 '암행어사가 작성한 서계'의 내용이 상반될 경우, 왕의 주관적인 마음에 따라 '계본'의 내용을 믿을지, '서계'의 내용을 믿을지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이 온전히 보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2~27] 현대시

(가) 「달」

- 정지용 -

작품 평가

한밤의 달빛에 물든 마당의 정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다. 시어들로 인해 촉 발되는 감각적 이미지에 주목하자.

제 1연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 화자는 잠이 들었다가 깬 상황이다. 아마 환한 달빛 때문일 것이다. 그런 화자의 눈에 달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창이 보인다. 달빛으로 인해 눈이 뜨이는 순간의 느낌과 눈에 들어오는 달빛 가득한 창외 모습을 느낌표를 사용하여 강조한 것이나,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밀물'에 빗댄 표현이 이채롭다.

제 2연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간다.

➡ 화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고 있다. 잠이 '미욱'하다는 것은 자다가 중간에 깬기 때문일 것이다.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간다는 것에서, 달빛을 받아 빛나는 마당의 정경에 이끌리는 화자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제 3연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긔 차고 넘치노나.

➡ 화자는 이제 마당에 나와 달빛 가득한 정경을 바라보고 있다. 제언에 제시되었던 '밀물'의 이미지는 여기서 '호수'의 이미지로 변주되어, 달빛으로 가득한 정경의 느낌을 부각해 주는 한편 그로 인해 차오르는 화자의 마음 역시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 4연

쪼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 화자는 '흰 돌'로 시선을 옮긴다. '흰 돌'은 정경의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요소에 불과하지만, 달빛을 받아 빛나고 아름답게 보인다. 달빛 속에서 정경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마당을 심미적 공간으로 재구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

제 5연

연연턴 녹음, 수목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 낮에는 연한 빛깔이던 마당의 나무들은 깊은 밤이라 수목색으로 짙게 보인다. 그런 와중에 깊은 잠에 든 상태에서 내는 것 같은 숨소리가 들린다. 이 숨소리는 화자의 숨소리일 수도 있고, 나무들의 숨소리일 수도 있다. 무엇으로 해석하든, 숨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밤의 분위기와 그 고요함 속에 담긴 생명력을 환기하며 읽으면 된다.

➡ 이전까지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었다면,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는 이처럼 다양한 감각을 환기하여 정경의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 6연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궁금하여)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화자는 비둘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무엇이 궁금하여 우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아름다운 달밤과 그 달밤을 구성하는 자연물들에서 화자가 느끼는 신비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구' 운다는 의성어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오동나무 꽃'의 향기를 말하는 부분에서 후각적 이미지가 환기된다.

이 감

(다) 「조춘점묘-공지에서」

- 이상 -

수록 지문 평가

도시의 풍경을 인상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상 특유의 도시적 감각과 근대 문명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드러나므로, 이를 잘 파악해 가며 읽도록 하자.

얼음이 아직 풀리기 전 어느 날, 덕수궁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마른 잔디 위에 날이 따뜻하면 여기저기 쌍쌍이 벌려 놓일 사람 더미가 이날은 그림자도 안 보인다. 이렇게 넓은 마당을 텅 이렇게 비워 두는 뜻이 알 길 없다.

땅이 심심할 것 같다.[→ 사람이 없어서 땅이 심심할 것 같다는 독특한 발상이다.] 땅도 인제는 초목이 우거지고 기암괴석이 배치되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 데만 만족해하지는 않을 게다. 차라리 초목이 없고 괴석이 없더라도[→ 자연물들이 사라진 상태] 집이 서고[→ 인공적 사물] 집 속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또 집과 집 사이에 참 아끼고 아껴서 남겨 놓은 가늘고 길고 요리 휘고 소리 흰 얼마간의 지면(地面)—즉, 길에는 누구든 신은 남녀가 뚜걱뚜걱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차량들이 굴러가고[→ 근대적 사물] 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렇게 땅의 성격도, 기호도 변하였을 것이다.

▶ 근대 이후 공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제 공간은 인간의 필요에 따른 활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 이걸 아마 겨울 동안에는 인마(人馬)의 통행을 엄금해 놓은 각별한 땅이나 아닌가 하고 대단히 점연쩍어서 부리나케 대한문으로 내달으려니까 하늘에 소리 있으니 사람의 소리로드[→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잔디밭 위에는 아무도 없고 지난 가을에 해드리고 간 캐러멜 싸개[→ 이 수필이 일제 강점기에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러멜'은 근대 도시를 환기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가 바람에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할 뿐이다.

▶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만 잔디밭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반드시 덕수궁에 적(籍)을 둔 금리(金鯉, 비단잉어) 떼나 놀아야 할 연못 속에 겨울 차림을 한 남녀가 무수히 헤어져 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하나도 육지에 올라선 이가 없이 말쑥 그 손바닥만 한 연못에 들어서서는 스마트한 스케이트를 즐기는 것이 아닌가.

▶ 사람들은 잔디밭이 아니라 얼어붙은 덕수궁 연못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

요컨대 새로 발견된 공지(空地, 집이나 밭 따위가 없는 비어 있는 땅)로군— 하고 경이의 눈을 옮길 길이 없어 가까이 다가서서는 그 새로 점령된 미끈미끈한 공지를 조심성스러이 좀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금리어들은 다 어디로 쫓겨 갔을까? (중략) 바닷까지 다 팡팡 열었다면 어족은 일거(一擧)에 몰사(沒死)하였을 것이고 얼음장 밑에 물이 흐르고 있다면 이 까닭 모를 소요[→ 사람들이 연못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금리어들에게는 소요인 셈이다.]에 얼마나 어족들이 골치를 앓을까? 이 신기한 공지를 즐기 위하여서는 물론 그들은 어족의 두통 같은 것은 가산(加算)하지 않았을 것이다.

▶ 글쓴이는 사람들이 연못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그곳에 사는 금리어들에 대해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긴다. 근대 문명이 개발의 과정에서 자연 존재들과의 공존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 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듯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엉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 보험 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板牆, 널빤지로 친 울타리)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말없이 눈으로 셈함) 범(凡) 천 평 이상의 명실상부의 공지가 아닌가.

▶ 글쓴이는 한 보험 회사가 회사 건물을 올릴 부지로 삼기 위해 마련해 놓은 넓은 땅을 발견한다. 이 땅은 널빤지로 테두리 쳐져 있을 뿐, 아직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공지'이다.

(중략)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뻗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亦) ○○ 보험 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 보험 회사의 부지를 '공지'라고 여겼던 글쓴이는, 이내 그것이 아직 개발이 유예된 땅일 뿐임을 깨닫는다. 잡초가 우거진 까닭에 마치 소유자가 없는 것 같은 외형을 띠고 있을 뿐, 소유자가 분명한 것이다. 우거진 잡초를 '건조물'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자신이 발견한 땅 역시 근대에 포섭되어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난다.

봄이 왔다. 가난한 방 안에 왜(倭)파리 분(盆, 화분)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씹이 튼다. 그 닻곱 한 되도 안 되는 흙 위에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 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 모든 곳이 근대 도시 문명에 포섭된 세계 속에서, 작게나마 자신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곳은 이 화분 안의 땅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다리를 뻗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 그러나 화분 안의 땅은 휴식을 취하기에는 너무 좁다.]

▶ 글쓴이는 자기 방 안의 화분이야말로 '공지'라는 생각에 도달하지만, 그 '공지' 역시 휴식의 공간이 될 만큼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간이 근대 문명에 포섭된 세계 속에서, 근대 문명을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어렵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